

# 도, 긴급복지 확대지원 12월까지 연장

### 도, 소득재산 완화 연말까지 적용 생계지원금 월 154만원으로 인상

경기도는 실직이나 질병으로 긴급위기에 빠진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3월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코로나 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

지원금액이 7월 1일부터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4인 기준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3억9500만 원 이하, 군 지역 2억6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768만 원(4인

기준) 이하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54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용 기자

# 경기관광공사, 조직 혁신 '도민과 함께' 진행

### 2022년 주민혁신단 위촉 도민 5명·전문가 5명으로 구성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가 혁신을 위해 도민들과 손을 맞잡았다.

3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혁신 소통기구인 2022년 주민혁신단을 위촉했다.

주민혁신단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도민 5명과 산·학·연 전문가가 내부 추천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혁신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공사 혁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사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도민 눈높이의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공사 유대열 사장직무대행은 "도민이 공감하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주민혁신단이 소통의 허브 역할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주민혁신단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실천하는 혁신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혁신 소통기구인 2022년 주민혁신단 위촉식을 열었다.

경기관광공사는 제공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1대 주민혁신단 10명을 선발해 공사 혁신 수준

진단, 사업 성과 모니터링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혁신경영 활동을 펼쳐왔다. 유연석 기자

### 도 특사경,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산업단지·전통시장 14곳 현장 운영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산업단지·전통시장 14곳에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4일 안산시 소재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7개소와 의정부제일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를 방문한다.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이 임시 상담 창구에서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 확인 시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해 피해를 줄이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과 대

처 요령 등을 안내하고, 피해 내용에 따라 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의 이용을 권유하기도 한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이용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피해자를 위해 도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사업이다.

김기용 기자

# GH,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착공

### 도 소유 옛 안성병원 부지에 통합공공임대주택 320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조감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제1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인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착공했다고 3일 밝혔다.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기도 소유의 옛 안성병원 부지에 통합공공임대주택 320호와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11월 GH와 경기도, 안성시가 옛 안성병원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계획됐다.

경기도는 부지를 제공하고, 안성시는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 조달 및 행정절차 지원과, GH는 공공청사건설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시공, 관리·운영을 맡아서 임대주택과 공공청사의 복합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저이용 공공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우수협업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복합개발을 통해 도민의 주거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내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2024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전형수 사장직무대행은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심 내 공공 부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기도민의 공공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기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소득·자산 기준 등을 단순화해 수요자 접근성은 높이고,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 통합 모델이다.

허수빈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개편... 일거양득 노린다

### 구직자엔 취업성공 로드맵 제시 기업엔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개편, '취업성공로드맵'과 '기업맞춤형서비스'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취업성공로드맵'은 사전단계에 구직자의 취업능력진단, 1단계 취업 상담, 2단계 자기소개서 컨설팅 및 AI 역량검사, 3단계 구인·구직 추천서비스 및 온라인박람회, 4단계 고용유지 및 취업지원 등 구직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구인 의사가 있는 도내 기업의 인제 채용 지원을 위해 '기업맞춤형서비스'를 마련, 원스톱 채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로는 참여기업 확보 등 기업모집, 2단계 채용 규모 파악 등 구인 상담, 3단계 온라인채용관 개설, 4단계 인재추천 등 맞춤형채용, 5단계 우수인재선발, 6단계 기업지원으로 진행된다. '잡아바'는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경기

청년 일자리매치업' 사업과 함께 온라인 메타버스 채용박람회를 진행한다. 구직자들은 메타버스 내에서 원하는 기업의 채용공고 확인이나 입사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177만 번째 잡아바 인(人)을 찾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177만 번째 가입자부터 총 7명의 가입자에게 경품도 제공한다.

김기용 기자

### ■ 본사 인사

- ◇ 신규
- ▲ 우경오  
  命 미디어사업본부 본부장
- ▲ 김기용 수습기자  
  命 편집국 정치부 기자
- ▲ 김셋별  
  命 인천본사 편집국 기자
- ▲ 박소영  
  命 인천본사 편집국 기자

<이상 7월 4일자>

“

경기도의 참 언론사인  
경기신문에서 독자 여러분의  
참신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도  
귀 기울이는 경기신문에 제보를 해주신다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신문 메인홈페이지 (www.kgnews.co.kr) 우측상단에 제보·투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더 빠른 제보가 가능합니다.

| 제보전화 | | 031) 268-8114 , 031) 257-4459 |